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을 중심으로*

이홍규** · 하남석***

요 약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온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온라인 민족주의의 확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주된 표적 중의 하나가 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 및 전통문화 문제, 영토 및 안보 관련 문제 그리고 각종 돌발적 문제들과 관련된 양국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의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 온라인에서 반한정서의 확산은 다시 한국 인터넷에서 반중감정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이는 곧바로 실제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실을 널리 알려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공외교’ 접근이 절실히 요망된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를 주창해온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대중국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주제어: 한중관계,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

* 본 연구는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동서대 국제학부 조교수, hujintao@hanmail.net

*** 한국외대 중국어대학 시간강사, nanxi95@hanmail.net

I. 서론

중국의 인터넷은 고속의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다.¹⁾ 최근 중국의 인터넷 발전 과정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민족주의의 확산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타국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자국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들을 집단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해당 국가의 주요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이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의 시위, 집회와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되어 더 격렬한 민족주의의 흐름으로 이어져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²⁾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주된 표적 중의 하나가 한국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중국 인터넷 민족주의의 주된 표출 대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경향이 감지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젊은 세대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했지만, 그에 대한 반감이나 역풍도 상당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온라인에서의 반한(反韓)정서의 확산은 다시 한국 인터넷에서 반중(反中)감정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는 곧바로 실제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실을 널리 알리

- 1)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6억 1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5358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인터넷 보급률도 45.8%에 달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도 5억 명에 달하여 중국 네티즌의 81%에 해당한다. (中國互聯網絡信息中 2014년1월) 그뿐 아니라 각종 홈페이지 수도 250만 개가 넘고, 블로그와 SNS 이용자들도 빠른 속도로 폭넓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에서 인터넷은 여전히 검열과 통제가 시행하는 공간이고 중국 네티즌들은 해외의 웹사이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히 표출하고 교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2) 특히 최근 일본과의 영토분쟁(중국에서는 조어도,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으로 촉발된 중국의 반일감정은 오프라인에서의 격렬한 반일시위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일본상점 습격, 일본제 자동차 파손, 일본인들에 대한 폭력 등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고 그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과정(Understanding, Informing and Influencing)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접근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를 생산해내는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연원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했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반한감정의 심화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한·중 관계에서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정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단일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촉발되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의 여파가 잔존하여 중첩되고, 그에 따라 고조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마찰이 있었던 초창기의 사건을 시작으로, 각 사건이 점층적으로 동시에 전개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했다. 이후 각각의 개별 사건에서 도출된 특성을 종합하여 그 안에서 나타나는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특성을 기존의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의 방법도 사용했다. 이미 한중 양국 간의 상호인식 등에 관한 양적인 설문조사 및 통계조사,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 등은 여러 편이 있기 때문에³⁾ 이 글에서는 한국의

3) 최근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중국인의 한국인식에 대한 구체적 설문 및 통계조사는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4) 참조;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인식 및 민족주의에 대한 구체적 설문 및 통계조사는 최지영,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국제정치논총』 51(1) (2011) 참조;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대학에서 공부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중국인들의 한국 인식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얻고자 했다.⁴⁾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섬세한 한국의 대(對)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 함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대(對)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론 부분에 이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⁵⁾

II.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형성과 특징

1.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형성

인터넷 공간은 젊은 세대가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볼

로는 신영미, “중국내 반한정서의 현황과 동인-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4(4) (2010/2011 겨울) 참조

- 4)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3년 이상 유학 중인 20대 중국인 학생들 중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부 학생들을 10명 선정하여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한국인식, 그리고 한중간 갈등사태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문헌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 5) 물론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남아있다. 지면의 한계로 본 연구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온라인 민족주의의 상관관계를 생략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의 정권 변화 이후 한-중 정상 간의 상호 방문 과정에서 부각된 공공외교 부분을 담지 못하였다. 또한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각 주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수 없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한다(류석진 외 2008, 92).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양면적인 특성은 중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켜 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지만, 역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중국과 같은 ‘발전지향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성격을 가진 국가들은 체제 변화 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적 통제와 정당성 간의 딜레마를 경제적 업적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인터넷을 통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고경민 2007, 32).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 공간을 통제 일변도로 또는 억압의 대상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 별로 선별적인 통제를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인권, 자유 등의 문제를 다루거나 반체제적 성격을 드러내는 성향의 게시물이나 사이트 등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지만 한편에서 자국의 부상을 선전하거나 민족주의적 담론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은 일정 정도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Shen and Breslin 2010, 8). 즉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애국주의적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외부의 견제와 압력 또는 위협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 표현이었으며,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상기된 강국(強國) 정서의 표출이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반미 정서와 반일 정서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NATO가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오폭을 했던 일명 ‘베오그라드 오폭 사건’이다. 당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격렬한 반미시위가 일어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각종 항의활동이 시작되었다. 인민일보의 웹사이트였던 ‘런민왕(人民網)’이 이와

관련한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이 안에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게시판은 이후 ‘강국논단(強國論壇)’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온라인 민족주의’가 흥성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나 용어가 학계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기철 2011, 96-97; 백지운 2005)⁶⁾.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주된 주체가 인터넷 사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가 확대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운동을 들 수 있다. 위에서도 간단히 서술했지만,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의 해체와 천안문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한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애국주의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의 청년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윤경우 2012). 실제로 심층면접(A)에서 한 중국 유학생은 중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6)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우쉬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로 ‘중국성(Chineseness)’, ‘인터넷 공간(Cyber-Sphere)’, ‘민족주의(Nationalism)’가 존재하며, 이들이 각각 ‘중국의 인터넷 공간(Chinese Cyber-sphere)’, ‘중국 민족주의(Chinese nationalism)’, ‘온라인 민족주의(Cyber nationalism)’의 3가지 2차적 요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2차적 요소가 다시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를 풀뿌리 민중(Grassroots)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Patriotism)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데올로기로 정의했다. (Xu 2009, 9-11) 그러나 이는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 즉 ‘부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두 이데올로기가 이분법적인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하여 정의하자면,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서구에 대한 열등감 및 분노가 정치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으로 유입되어, 애국주의의 흥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의 통제(혹은 방관) 하에 급속히 확산된 일련의 민족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세준 2010, 140-141)

“중국 교과서에서 민족주의는 아주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와 관련해 암묵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민족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저도 한국에 온 이후로 민족의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민족주의를 폄하하는 글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사회유동화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국민의 통일감의 양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고도성장형 민족주의’와는 달리 현재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는 가속화된 탈공업화 및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내던져진 ‘개별불안형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안정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고도성장형 민족주의’와는 달리 급증한 사회유동화 속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된 정서인 ‘개별불안형 민족주의’의 특성이 나타난다. (Takahara 2007) 중국 청년세대의 온라인 민족주의는 ‘경제성장의 조(躁)’와 ‘정치사회적 무력감의 울(鬱)’이 만나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심층면접(G)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가 강한 이유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상실감으로 들기도 했다.

“중국의 ‘핀칭(憤靑)’⁷⁾은 사회, 정부, 국가에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세대로 인터넷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강력한 수호자들이에요. 사회불만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7) 핀칭(憤靑)은 ‘분노한 청년’이라는 뜻으로 대체로 애국주의, 민족주의에 불타는 열혈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온라인에서만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격정적으로 시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時代商報 2004年11月10日)

종합하자면,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는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축적된 반(反)서구 및 반일 정서, 경제 성장과 함께 향상된 국제적 지위에 따른 자신감, 공산당의 애국주의 교육운동 강화, 사회유동화 급증에 대한 불안과 불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등장한 것이다.

2.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특징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민족주의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언론이 제일 먼저 선정적 보도를 한다. 때로는 네티즌들이 민족주의 여론을 직접 조장하기도 하며, 종종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사실 관계가 확실치 않은 루머를 조작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언론보도에 반응하여 네티즌들이 SNS나 각종 게시판과 토론방 등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고 해당 게시물들을 공유하거나 퍼 나르고 활발하게 댓글 논쟁 등을 벌여 감정을 증폭시킨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여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민족주의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민족주의 열풍이 급속하게 확대될 경우, 네티즌들은 작게는 인터넷 내의 서명운동이나 해당 국가 제품이나 문화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캠페인적인 활동에서부터 크게는 온라인을 벗어나 실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슈 대상 국가의 중요 사이트 해킹 등을 하기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동이 당국의 개입으로 소강상태 또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단계이다. 공산당은 미디어들에 구체적인 보도

〈표 1〉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단계	성격	구체적 내용
1단계	발생	사건발생 및 언론의 선정적 보도
2단계	확산	네티즌들의 게시물 올리기, 댓글 달기, 퍼 나르기, 공유하기
3단계	폭발	서명운동, 불매운동, 집회 및 시위, 상대국 주요 사이트 해킹
4단계	소강	당국의 개입-온라인 민족주의의 진정 및 소강

출처: 윤경우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 민족주의」,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4집 (2012) pp. 170~17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체 지침을 내리고 검열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는 집단 정서가 반체제 운동으로 전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며, 타국에 대한 과도한 배타적인 정서나 실제 행동이 해외에 반중(反中) 감정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중국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나름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통제에 나선다 (윤경우 2012, 170-172; 박기철 2011, 102-108).

일반적으로 온라인 민족주의는 네트워크를 통해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소한 문제제기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민족주의 담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민족주의 담론의 경우 응집과 확산의 속도가 그 어떤 담론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온라인 민족주의는 사례의 선별을 통해 극명한 모순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특징도 있다. 즉, 문화적 코드와 경제적 코드의 긴장관계라든가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의 갈등 혹은 세대간 갈등 모두를 현시화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온라인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담론의 내용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되는 선별적인 사건 속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된다. 역사나 정치적 기억의 한시적 성격이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모순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류석진 외 2008, 93).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민족주의의 일반적 성격은 각 국가의 현실 민족주의의 특성들과 다시 결합되어 지역적, 시간적으로 더 복잡하고 모순된 특성

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온라인 민족주의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특성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신속성이다.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전 시기의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범위로 네티즌들에게 전달되며, 또한 그 강도를 증폭시킨다(趙立新 2011, 393). 2010년 발생했었던 한중 갈등 사례 중 하나인 6·9 성전(聖戰)⁸⁾의 경우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2010년 5월 30일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이 관련 게시물들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로 퍼갔으며, 이러한 ‘뽀글’은 해당 게시판 내에서 또 다른 지지 세력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전’은 많은 네티즌들의 여론을 모아 결과적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중국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특성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광범위성과 관련이 깊으며, 권력기구의 인터넷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SNS와 같이 기존 매체와는 차별화된 개인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정보 전달의 신속성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紫素芬 2008).

두 번째는 부정확성이다. 중국 언론 환경의 낙후성과 언론인들의 책임감 부재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들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되어 중국의 다수 네티즌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된다. 실제로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산

8) 6·9 성전(聖戰)은 2010년 5월 30일 상하이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한류 팬들과 경찰과의 충돌로 비롯된 사건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폭발한 한류팬들과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 인터넷에선 이 사건이 중국의 자존심을 구긴 일이라고 판단한 온라인 민족주의 세력이 각종 게시물들을 남기고 6월 9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한류 사이트들을 비롯하여 한국 관련 사이트들을 공격한 사건을 일컫는다.

둥(山東)성의 치루완바오(齊魯晚報)는 2010년 5월 15일자로 "한국의 당진군이 '줄다리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한국의 당진군은 줄다리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게재된 이 오보는 같은 날 중국의 대표 일간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이 기사에 다른 한국기원설 관련 기사를 추가해 "어떤 문화가 한국에 도둑맞았나?"라는 특집 기사를 꾸미기도 했다. 또한 '난징대학살 조선인 참여설'은 현재 중국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바이두(百度)' 백과사전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반한감정'의 원인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박세준 2012, 152).

세 번째는 복잡성 혹은 모순성이다. 이는 중국 민족주의 일반의 특성에서 온 것이기도 한데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감과 서구에 대한 열등감이 결합된 복합적인 민족주의이기도 하다.⁹⁾ 위에서 살펴봤듯이 중국 민족주의 자체가 역사의 곡절에 따라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민족주의 역시 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타 주변국들에게도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다가도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Gries 2004). 이는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류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 열광하다가도 그에 대해 강렬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9) 중국의 민족주의 담론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는 연구로는 조경란(2010)을 참고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 민족주의의 본질성과 복잡성을 추적한 연구로는 Palgrave Macmillan(2007)을 참조할 수 있다.

Ⅲ. 한-중간 온라인 갈등과 한중관계

1. 한-중간 주요 온라인 갈등 사례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우호적 관계가 확대되어왔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오해와 편견들이 생겨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부정적 인식도 확대되었다. 특히 양국 국민들은 상대에게 상당한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서로 열등감을 덜기 위해 자부심을 갖는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⁰⁾

199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는 그 대상이 주로 미국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한중 양국 간에 동북공정 등을 기점으로 역사 갈등이 발생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난하는 중국인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된 점이나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중국 비하 댓글이 중국 사이트에 번역되어 분노를 산 점 등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위에서 살펴봤듯이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향 중 하나가 복합성 또는 모순성이다. 반미(反美) 정서나 항일(抗日) 정서에서 중국은 항상 타국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는데 비해 현재의 반한(反韓)정서에는 중국인들의 우월감이 더욱 크게 반영된 점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비록 한류가 자국문화를 압박하는 ‘침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중 주요 갈등 사례에서

10)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인은 중국을 너무 크게 보고 중국인은 작게 본 반면, 중국인은 한국을 너무 작게 보고 한국인을 너무 크게 본다.”고 할 수 있겠다(민귀식 2012, 87).

보이는 중국 네티즌들의 심리는 근대 이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에 대한 회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불인정과 경계심이다(박세준 2010, 141-149).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중간 주요 온라인 갈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선 한중 양국 네티즌들 간에 가장 설전이 많이 벌어지는 주제가 바로 역사 문제나 전통문화 귀속 문제다. 일본과의 갈등이 주로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했던 군국주의적인 근현대에서 비롯되는 반면, 한중 양국 간의 역사 논쟁은 주로 고대사와 관련이 많다. 이런 역사 갈등 문제는 바로 동북공정으로 부터 비롯되었다.¹¹⁾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낙후한 동북지역에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동북지역 인민들이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구심력을 강화하여 사회의 체제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즉 중국에게 있어서 동북공정은 국가통합 및 변경 안정을 통한 체제안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고구려 역사는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양보할 수 없는 역사주권 차원의 문제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국의 고대사 왜곡과 빼앗기로 규정하고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이동률 2011, 62-63).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계속해서 밀월관계라 불릴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동북공정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일대 변화가 생기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바로 중국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었고 이에 중국 네티즌들

11) 이른바 ‘동북공정’이란 2002년 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주관하여 5년 계획으로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관련 연구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동북공정 및 고대사 관련 한중간의 갈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대원(2009) 참조.

또한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극 등 드라마에서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이 갈등은 역사 및 전통 문화들이 과연 어느 나라의 것이냐는 문화중주권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을 두고 이를 전통문화 귀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더욱 갈등이 증폭되었다. 2004년 한국이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한국의 문화약탈이라고 규정하고 격분했으며, 2005년 결국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자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감정 역시 심화되기 시작했다.¹²⁾ 한편 중국 정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의 전통문화와 풍습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중 2009년 조선족 농악무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이는 다시 한국인들을 자극했다.

2010년에는 ‘한글 표준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글 휴대전화 자판 국제 표준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인터넷 상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트위터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외수 씨가 “중국이라는 도둑”, “짱깨들”, “이참에 우리도 천안문, 삼국지, 만리장성, 홍콩 다 우리 거라고 한번 우겨볼까” 등 다소 격한 표현으로 감정을 표출하면서 이는 한국의 다수 네티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급기야 한국 네티즌들은 이를 ‘한글공정’이라 명명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전통문화 귀속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치, 한의학, 아리랑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동북공정 이후로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을 한국 역사와 문화의 강탈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네티즌들 역시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 형성의 기

12) 실제로 이번 심층면접에서 상당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는 질문에 단오절 관련 얘기들을 사례로 들었다.

초리는 인식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여긴다.

(2)

독도나 조어도 문제로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중간에는 아직 공개적으로 영토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없고, 한중 양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영토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영토 문제 역시 네티즌들 간에는 역사 문제만큼이나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네티즌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북공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태에서 기존부터 존재하던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주장, 예를 들어 만주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한국 인터넷에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중국 장춘(長春)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피켓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양국간 영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당시 한국 선수단은 중국의 주최국 텃세 등에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개막식 공연에서 백두산을 장백산(長白山)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테마로 설정한 것에 항의하는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이동률 2011, 65). 이러한 행위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며, 중국 네티즌들 역시 격렬하게 반발하고 이에 각종 패러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 세리머니’ 문제 등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갈등은 간도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간도는 조선과 청의 국경지대였던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강변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1909년 당시 조선을 합병한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한국영토로 수복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기도 한다. 2009년에 간도협약 100년이 되면서 이러한 담론이 더 많이 논의되고 이러한 주장들이 중국 매체에도 보도되면서 중국 네티즌들 역시 격렬하게

반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영토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남의 영토를 부당하게 탐하는 얽치없는 국가로 인식했다.

결국 아직 한중 양국 간에 공식적인 영토 분쟁은 없지만,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소프트 이슈에 대한 논쟁이 갈등으로 확산되면 이것이 양국 네티즌들과 국민들을 자극하여 잠복되어 있는 영토 분쟁이라는 하드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이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자 안보 문제 또한 온라인 갈등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¹³⁾ 2010년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측의 항공모함이 포함된 한미군사 합동훈련을 서해에서 진행하려 하자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에 한미 양국은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해야 했다.

최근에는 서해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가 발생했었다. 2011년에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에 한국 해경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2012년에는 반대로 단속과정에서 한국 해경이 쏜 고무총탄에 한 중국 어민이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강력한 설전이 벌어졌고, 비이성적인 악성 댓글도 많이 등장했다. 다행히 사망이라는 폭발력이 큰 사건에서 양국 정부가 비교적 갈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차분히 해결되었다.

영토나 안보 문제는 역사나 전통문화 귀속 문제처럼 중국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전자가 후자와 섞여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현재 중국이 일본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

13) 실제 심층면접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최근의 중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국과 한국은 함께 동아시아에 속하고 서로 더 소통해야 하는데 한국이 모든 일을 미국의 시각에서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표현했다.

쟁 문제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장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다음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갈등이 있다. 우선 2008년에 양국 간에 온 라인 갈등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북경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4월에 서울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을 지지하려 모여 든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티벳 탄압과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상황을 저지하려던 경찰들과도 크게 충돌하게 된다.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은 한국인들에게 반중감정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이어 5월에 중국 윈촨(汶川)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올림픽이라는 국가의 경사를 치르기 위해 매진하고 있던 중국에게는 참담한 재앙이었다. 중국에서는 이 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호 활동에서 여러 미담들이 회자되고 있던 터에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단 악성 댓글이 중국 인터넷에 번역 소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대신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민간의 노력들도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락해버렸다.

한편, 7월에는 SBS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리허설 장면을 일부 보도한 것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물론 중국 네티즌들도 대대적으로 항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중국 국민들이 올림픽이라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 때, 행사를 망치는 것처럼 보인 SBS의 행위는 자국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들을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들이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오원춘이라는 조선족 이주노동자가 한국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이 문제로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으며, 악

성 댓글도 다수 이어졌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이 식인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이러한 돌발적 이슈들이 온라인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잠복해있던 반한정서나 반중정서가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기존에 묻혀있던 역사나 전통문화 귀속 문제와 같은 다른 이슈들까지 같이 제기되면서 반대감정이 증폭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보도나 과장보도가 더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2. 한-중간 온라인 갈등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2년 수교 20년을 맞아 한중관계는 경제와 사회교류는 물론이고 한중 국방장관 간의 회담 정례화 등 정치안보차원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관계발전을 촉진시켜 왔던 동인들 주로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작용이 축소 또는 변화하고 있는 반면, 양국관계가 다변화되면서 부정적인 현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중 양국 간에는 이러한 양국 내에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와 이익 분출이 충돌될 개연성 높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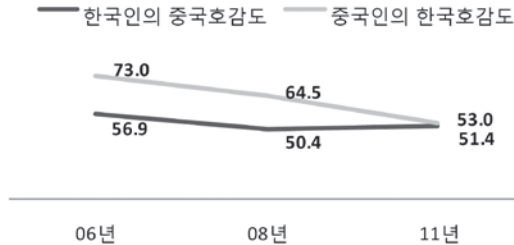
상술한 것처럼 온라인 공간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양국 간 갈등 문제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 특히 기존 세대보다도 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하며, 최근에는 SNS 등 기존보다 신속하게 확산되는 매체의 특성을 따라 하나의 이슈가 더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한중 양국 간에는 이 젊은 세대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서로 간의 언어에 능통한 유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정보를 전달하면, 이를 언론이 받아쓰고, 이 문제는 다시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어 양국 네티즌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된다. 게다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문자정보로 기록된 갈등 사례들이 쉽게 검색되고 사건이 발

생활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난 이슈들까지 다시 제기되는 특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중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은 모두 나빠지는 추세에 있다. 2011년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공동 조사한 한중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함께 나빠지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한중간 온라인 갈등사례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추세를 살펴해보자면,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증폭된 온라인의 민족주의 갈등이 양국

<그림 1> 한중 국민 간 상대국 호감도 변화추이(평균점수)



출처: EAI-ARI 공동 "2011 한중 국민인식 조사" 기초분석

간의 반중정서와 반한정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한-중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양국 청소년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채널로 모두 인터넷을 절대적인 1순위로 꼽고 있으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객관적인 이해와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 자제 등을 꼽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반한 정서와 같은 비우호적 감정의 발생 원인으로 한-중 청소년은 모두 상대방의 우월감과 역사 문화적 마찰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편향된 민족주의 정서 등을 꼽고 있는 점이다. 결국 한-중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을 인식하며 상대방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행위와 정서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윤철경 외 2011, 3-50). 온라인 민족주의가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에 악영

향을 주고 있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대다수 대중들의 뉴스 접촉 수단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 SNS(트위터, 페이스북, 웨이보 등) 등이 이미 여론형성지로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양국 관계에서 온라인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 문제는 향후 한중간에는 협력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갈등영역도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소재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이 함께 나타나는 현 국면에선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을 관계 발전의 ‘성장통’으로 간주하되, 온라인 공간에서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의 발생을 완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섬세하고 지속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대중(對中) 외교의 새로운 전략으로 공공외교 접근을 제시하고 특히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접근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對中 외교 전략으로서의 디지털 공공외교

1. 공공외교 접근과 디지털 공공외교

한-중 간 민족주의적 갈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접근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된다(김상배 2012b, 70-78; 마영삼 2011, 1-6).

첫째, 전통적인 외교는 상대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외교는 일반적으로 상대국 정부가 아니라 상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이는 외교를 의미한다.

둘째, 전통적인 외교는 정부의 외교 당국과 외교관들이 담당하는 체제라면 새로운 공공외교는 정부의 외교부처와 소수의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외교 방식이다(Melissen 2008, 55).¹⁴⁾

셋째, 두 번째 특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관행의 핵심이 외교적 교섭과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밀외교에 있다면 새로운 공공외교는 개방적인 공개외교이자 국내외 대중들과 소통하는 소통외교이다.¹⁵⁾

넷째, 전통적인 외교가 근본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라면 새로운 공공외교는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감성과 같은 문화적 능력 즉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기반으로 한다(Nye 2006).¹⁶⁾

따라서 전통외교와 공공외교는 주체, 대상, 수단, 자원의 측면에서 아래 <

14) 공공외교는 사실상 대중외교를 기반으로 한다. 공공외교는 상대 국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설득하는 외교인 만큼 문화, 지식, 정보, 과학기술 등의 자원이 중요하며 따라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나 기업, 교육 및 과학기술 단체 등 민간 조직과 다양한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네티즌 등 시민사회의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15) 우선 한국 국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져 있어야 정부는 물론 다양한 민간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외교 체제가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만 상대 국가의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감성을 전달할 다양한 경로와 방식의 소통 채널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16)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같이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강압(coercion)이나 경제력에 의한 보상(payment)이 아니라 매력(attraction)을 통해서, 혹은 정치적 어젠다(agenda)를 주도함으로써 설득을 통해서 타국의 선호(preferance)에 영향을 미쳐 자발적 순응을 끌어내는 권력 행사방식을 의미한다. 소프트파워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하드파워의 발휘에 대해 상대국은 매우 위협스럽게 느끼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양국관계의 갈등이 야기된다. 예컨대 미국 외교의 쇠락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가치라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각국 사람들이 점차 이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

표2)와 같이 대비될 수 있다. 결국 공공외교의 특징은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외교이자 공동외교라는 점에 있다. 즉 공공외교는 한 국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로 시현되는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상대국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사실 공공외교는 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對소련 및 공산권 외교의 중요한 (표 2)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의 비교

	전통외교	공공외교
대상	상대국의 정부	상대국의 국민
주체	외교당국과 외교관	외교당국, 여타 정부 부처, 시민사회, 기업, 네티즌 등 모든 구성원
수단	폐쇄적이고 비공개적 교섭과 협상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소통과 교류
자원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	문화적 능력 즉 소프트웨어

자료출처: 필자가 작성

축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 정부는 미국적 상상과 이미지 그리고 그 창조적 표현물을 전 세계로 파급시키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여러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미국은 상대국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국의 가치를 강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상대국 국민의 반발을 가져왔다 (Waltz 2007, 6). 더욱이 과거 미국의 공공외교는 국가의 소프트웨어 ‘자원’에 기대어 양자 관계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발신자-수신자 모델’ 즉 일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술, 정보, 소통의 세계정치가 구현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공공외교는 단위 차원의 발상을 넘어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좀 더 복합적인 관계, 즉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김상배 2012a, 119).¹⁷⁾ 즉, 공공외교

17) 김상배는 기존의 공공외교 연구가 주로 단위 차원에서 본 행위자의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삼

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우월한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는 데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특히 상대국의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는데 있다. 예컨대, 우리가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에 대응할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중국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쌍방향으로 중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성된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문화와 지식을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파워가 생성되어 공공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공공외교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IT)의 혁신이 대거 등장하면서 공공외교는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Potter 2002, 7). 공공외교는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ystem) 등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체제의 전지구적 구축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배 2012a).¹⁸⁾ 즉, 지난 십여 년 동안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가 창출한 인터넷 공간이 새로운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인터넷은 가장 새롭고 가장 간편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상호성이 가장 높은 매체로 공공외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폰 등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기기의 등장은 디

기 때문에 공공외교 연구가 네트워크 맥락을 사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의 대상 즉 각 국가의 공공외교 전략이 실제적으로 자국의 이념과 가치를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전파시키려고 할 뿐 상대국의 국민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 광섬유, 케이블, 위성통신 등의 기술 발전으로 전 지구적으로 정보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었고 컴퓨터 등 정보기기가 발전되어 정보통신의 하드웨어가 넓게 보급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인터넷,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기술도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 콘텐츠도 이제 실제 현실을 그대로 촬영한 동영상까지 매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 직접적인 소통이 용이해진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털 공공외교의 새로운 공간을 열고 있다. 한국의 스마트폰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국의 대중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차원을 넘어서 오프라인 공간의 세계정치에 거꾸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⁹⁾

디지털 외교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김상배 2012a, 118). 당시 미국 정부는 당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컴퓨터에만 기대는 전파외교(Telediplomacy) 수준을 넘어서 대신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폭넓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비정부 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디지털 공공외교의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국내 정보통신 정책을 개선했다(Dizard 2001). 그러나 2001년 이른바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공공외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오히려 크게 추락한다.²⁰⁾

결국, 디지털 공공외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나 집단의 실제 대외적 행태가 공공외교의 기초에 반대 방향으로

19) 예컨대, 미국에서 제작된 반무슬림 영화 한 편이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아랍지역에서 반미(反美)시위와反서방 시위가 발생했으며 결국엔 서방 각국 대사관들에 대한 방화사건과 한 미국대사의 사망 등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어지기도 했다.

20) 특히 2004년 4월 이라크 주둔 미군이 현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저지른 포로 학대 사진과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폭로되면서 이라크 전쟁이 일찌감치 “혈오스런 전쟁”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오바마가 집권 이후에 한편으로는 이라크 철수를 실시하면서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시정권 시절의 오명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왔다(Lichtenstein 2010, 6; New York Times 2010). 하지만 2012년 1월 아프간 주둔 미군 병사들의 추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아직까지도 미국의 디지털 공공외교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하여 훼손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왔다.

나타날 경우 오히려 큰 역풍을 받게 된다. 기존의 공공외교는 TV나 라디오 혹은 영화와 같은 일방향적 미디어에 의지하여 일부 사람들이 반감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그 대중적 확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반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공공외교 즉 디지털 공공외교는 한 국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매력이 대중 속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지만 대중들과의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對中 디지털 공공외교의 필요성

중국은 이미 근대 이전까지 유교 등 자신의 사상 문화 자원을 소프트파워로서 발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공체계라고 부르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질서란 바로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였던 질서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마오쩌둥 사상은 제3세계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마오쩌둥 사상을 조직 이념으로 받아들인 제3세계 국가 혹은 반군 게릴라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서유럽 지식인들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래부터 중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중국 당국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G2로의 부상과 경제적 성장 등에 힘입어 증강된 하드파워에 걸맞게 소프트파워 증강에도 전력을 기울이며 공공외교에 주력하고 있다.²¹⁾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공외교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는 중국의 공공외교를 반감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²²⁾ 이는 매력 공세를 포기하고 무력

21) 중국의 소프트 파워 수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Joseph 2005; Joshua 2007; 김동하 2011; 이영학, 2010; 이홍규 2011).

22) 중국은 일본과는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남사군도(南沙群島) 등 남중국해 유역에 대해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 문제가

공세를 펴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인 영토 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토 분쟁을 둘러싼 중국 내 온라인 민족주의는 중국의 공공외교 특히 중국의 디지털 공공외교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가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속에서 생성되어 온 사실로 보아 중국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거꾸로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對中 외교 전략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가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기반이 중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기반보다 월등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인터넷이 중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어 디지털 공공외교의 다양한 주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소셜미디어 공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공공외교의 주된 특징이 ‘소통’을 통한 공감과 설득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사람들의 소통 그 자체를 통제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셈이다.²³⁾ 결국, 중국처럼 봉쇄적인 소셜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 중 한 부분인 자유로운 시민사회나 네티즌 문화가 성립될 수 없고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논쟁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국가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근본적으로 얻어낼 수가 없다. 물론 몇 년 전 일어난 이른바 ‘박정근 사건’에서 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중국은 한국과도 이어도 인근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23)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인터넷의 소통을 국내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인트라넷(Intranet)이라고 할 만큼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봉쇄 일변도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검색망인 구글(Google)은 중국 당국의 통제에 반발하여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한국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사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체제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워드프레스 역시 막혀있어 세계 각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 활동도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오직 중국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체제인 웨이보(Weibo)만이 허용되고 소후(Sohu), 시나(Sina), 바이두(Baidu) 등 포털 검색망과 유쿠(Youku), 투도우(Tudou) 같은 자국 내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할 뿐이다.

듯 현재 한국의 인터넷 공간도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²⁴⁾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에 개방적이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 활동이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원은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에 의해 제약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류’의 세계화 과정에서 보듯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원은 민족주의적 색채도 띠고 있음에도反서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음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원은 세계적 호응을 받는다. 이는 이미 한국 사회가 이미 보편적 혹은 세계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어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소프트 파워 자원들도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의 하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구축에 장애가 될 정도로 양자는 모순적이다.²⁵⁾ 이는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전 세계적 확산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정서 확산은 ‘중화주의’의 부활을 야기하여 주변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식 소프트 파워의 확산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홍규 2011, 300-301).

결국, 중국의 초강대국화로 인해 하드파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한-중 양국 관계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쌍방향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는 한국에게 이러한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절실한 외교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대(對)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과 그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24) ‘박정근 사건’이란 박정근이란 네티즌이 풍자의 목적으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트위터를 리트윗한 사실에 대하여 한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린 사건으로 이는 한국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희극적인 사건이다.

25)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서방국가들의 중국 제재, 1999년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나토군의 ‘오폭’ 사건과 2001년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건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시 나타난 민족주의 정서 등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방 국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나 反서방적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對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과 주요 정책 방안

본고는 보다 현실감 있는 한국의 대(對)중국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대(對)중국 공공외교의 거시적 정책 환경을 개선할 것 그리고 세심한 미시적 정책 방안들을 수립할 것 등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대(對)중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거시적 정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민간 주도의 미래지향적 공공외교의 추진이다.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는 정부주도형 공공외교의 성격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²⁶⁾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對중국 공공외교에서 한국 정부는 중문 홈페이지 구축 등 일방향적 홍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 부문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네티즌들과 상시적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 인터넷 민주주의 심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자국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외교는 자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마영삼 2011, 3).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자국 국민과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

26) 나아가 기존의 對중국 공공외교는 각기 정권의 성향과 속성에 따라 공공외교를 펼치는 정권 종속적 혹은 정권 주도형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중국 내 일반 국민의 경우 한국에 대한 호감도 면에서 한국 기업과 대중문화, 재중한국인, 한국인, 한국 정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동률 외 2010, 80-82).

이 먼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²⁷⁾

셋째, 한국의 대(對)중국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류의 흥성,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 등 일견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 다만 한국이 소프트 파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국인들에게서 존중받는 선진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²⁹⁾

넷째, 다양하고 진지한 한-중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한-중 인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³⁰⁾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은 비우호적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인적 교류의 수준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하되 진지한 수준으로

27) 물론, 인터넷 공간은 쌍방향적인 공간인 만큼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방적인 비방,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한 오해, 정보의 왜곡이나 변질 가능성도 높은 공간인 만큼 정부가 느끼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정치적 리스크는 작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법치 하에서 성숙되어왔듯이 정부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법치의 관점에서 성숙시킬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법적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자유롭고 충분히 창출되도록 보장하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28) 한국 배우와 드라마 그리고 K-pop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부각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 동양적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해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 중국의 경우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화에 맞추어 자국의 소프트 파워 증대에 힘을 쓰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부족, 인권 침해, 소수민족 문제, 빈부격차, 노동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존경을 받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소수의 국가 중 한 국가로 인정받아 왔다. 비록 한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노동의 위기 문제나 복지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 왔으나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업화,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한국이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체제 구축을 통해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존중받는 국가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기반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러한 한국의 변화가 중국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30)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았던 2012년의 경우 한-중 인적 교류는 650만 명 수준으로 1992년 수교 당시의 50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한국일보 12/08/20).

끌어올려야 한다.³¹⁾

한편, 우리는 이에 기반하여 미시적인 정책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 시민단체의 온라인 한-중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³²⁾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중국 시민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 시민단체의 온라인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간 온라인 문화교류 활성화하여야 한다. 탈근대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에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와 융합됨으로써 소멸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 더욱이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서로 높은 만큼 양국이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³³⁾

셋째,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의 확대 및 사이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신설이다.³⁴⁾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대학 시스템 및

31) 양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단점을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서로 열등감을 덜기 위해 국가적 자부심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부풀리고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한다(민귀식 2012, 87-88).

32)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국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혀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소수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에 소속된 주요 인물들이 전직 고위관료나 전직 기업가 출신으로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치중할 뿐 다양하고 진지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동률 외 2010, 77-80).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수사업을 펼치는 등 미래지향적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대표적 단체로 평가받는 ‘한중문화청소년센터(미래숲)’ (<http://www.futureforest.org/>) 만이 그 가운데 유일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 역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33) 예컨대, 온라인상으로 <한-중대중 문화교류의 전당(가칭)>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대중문화 콘텐츠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대중문화 콘텐츠는 한-중 양국 내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한-중 대중문화 콘텐츠 온라인 장터(가칭)’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다.

34) 온라인 공간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들은 청년세대이고 온라인 민족주의 갈등의 핵심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민족주의 성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인적 교류, 상호이해가 확대되어 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대학에

E-learning 프로그램 운용을 적극 도입하여 사이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해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의 민족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온라인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유통의 신속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파급력 그리고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한다면 양국 공통의 온라인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의 창출을 통한 이해의 심화나 소통 창구의 다양화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 기제의 창출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³⁵⁾

다섯째, 한중 양국 간 허위보도 불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 미디어의 허위보도나 사실 확인이 잘 되지 않은 루머 보도로 인해 한중간 온라인 갈등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경향이 많다. 양국 간 오해를 불식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대학생 공동 수업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

35) 한-중 양국 간 자유로이 동영상 UCC를 올릴 수 있는 한중 UCC 포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을 자유롭게 하고 그 가운데 네티즌들이 자국의 UCC에 대한 위키(Wiki) 방식과 같은 번역문을 올리고 생산적으로 콘텐츠 유통과정에 참여한다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역사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게시판에서의 토론으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는 것이다.

[투 고 일 : 2014년06월29일]

[심사완료일 : 2014년07월28일]

[게재확정일 : 2014년08월20일]

참고문헌

- 고경민(Ko, Kyongmin). 2007.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 가능한가? - 중국 인터넷 발전의 정치적 외부효과와 정부의 역할.”(Internet Baljeon-gwa Gwonwijuui Cheje-neun Yangrip Ganeughanga? - Jungguk Internet Baljeon-ui Jeongchijeok Oebuhyogwa-wa Jeongbu-ui Yeokhal) 『국제정치논총』(Gukje Jeongchi Nonchong) 47(2): 29-49.
- 김동하(Kim, Dong-Ha). 2011. 『차이나 소프트 파워』(China Soft Power). 서울(Seoul): 무한(Muhan).
- 김상배(Kim, Sang-Bae). 2012a. “소셜 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Social Media-wa Gonggong Oegyo: Haengwija-Network Iron-euro Boneun Miguk-ui Jeonryak) 『국제정치논총』(Gukje Jeongchi Nonchong) 52(2): 117-142.
- _____. 2012b. “21세기 공공외교의 도전과 과제.”(21Segi Gonggong Oegyo-ui Dojeon-gwa Gwaje) 『한일협력』(Hanil Hyeoblyeok) (2012년 1월 1일).
- 다카하라 모토아키(Takahara Motoaki) 지음. 정호석(Jeong, Ho-seok) 옮김.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젊은 이들의 갈등 읽기』(Han-Jung-Il Internet Sedae-ga Seoro Miwohaneun Jinjja Iyou). 서울(Seoul): 삼인(Samin).
- 류석진(Lew, Suk-Jin) · 조희정(Cho, Hee Jung). 2008.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 게시판과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On-line Gonggan-ui Minjokjuujeok Galdeung-e Daehan Yeongu: Gesipan-gwa Dongyeongsang UCC-reul Jungsim-eur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Cyber Communication Hakbo) 25(4): 83-117.
- 마영삼(Ma, Yeong-Sam). 2011.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Gonggong Oegyo-ui Hyeonhwang-gwa Uri-ui Jeongchaek BangHyang) 『JPI 정책포럼』(JPI Jeongchaek Forum) 83: 1-19.
- 민귀식(Min, Gwi-Sik). 2012. “한중수교 이후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변화.”(Hanjung Sugyo

- Yihu Yangguk Gukmin-ui Sangho Insik Byeonhwa) 『동아시아 브리프』(DongAsia Brief) 7(3): 87-90.
- 박기철(Park, Kicheol). 2011.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사례와 영향.” (Jungguk-ui ‘Internet Minjokjuui’-wa Daeoejeongchaek-e Gwanhan Yeongu) 『중국학연구』(Junggukhak Yeongu) 55: 93-119.
- 박세준(Park, Se Joon). 2010. 『중국 누리망(인터넷) 민족주의의 확산과 영향요소에 대한 연구』(Jungguk Nurimang Minjokjuui-ui Hwaksan-gwa Yeonghyangyoso-e Daehan Yeongu).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논문(Hankuk Oegukeo Daehaggyo Gukjejiyeokdaehakwon Seogsa Hagwi Nonmun).
- 백지운(Baik, Jiwoon). 2005. “전지구화 시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Jeonjiguhwa Sidae Jungguk-ui Internet Minjokjuui) 『중국현대문학』(Jungguk Hyundae Moonhak) 34: 255-278.
- 신영미(Shin, Young-Mee). 2010. “중국 내 반한정서의 현황과 동인 -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Jungguknae Banhanjeongseo-ui Hyunhwang-gwa Dongin - Internet Gonggan-ul Jungsim-euro) 『중소연구』(Jungso Yeongu) 34(4): 107-138.
- 얀 멜리센(Jan Melissen) 엮음, 박종일(Park, Jong-Il) · 박선영(Park, Sen-Yeong) 옮김 (trans). 2008.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Sin Gonggong Oegyo: Gukje Gwangye-wa Soft power). 일산(Ilsan): 인간사랑(Ingan Sarang).
- 윤경우(Yun, Gyong-woo). 2012.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 민족주의.”(Jungguk-ui Aegukjuui Gyoyuk-gwa Cyber Minjokjuui) 『인문사회과학연구』(Inmunsahoe Gwahak Yeongu) 34: 153-178.
- 윤대원(Yoon, Dae-Won). 2009. 『21세기 한중일 역사전쟁』(21segi Han-Jung-Il Yeoksa Jeonjaeng) 파주(Paju): 서해문집(Seohae Munjip).
- 윤철경(Yun, Cheol-Gyeong) · 오해섭(O, Hae-Seob). 2011. “한국과 중국 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조사.”(Hanguk-gwa Jungguk Chengnyeon-ui Sasngdaeguk-e Daehan Insik-gwa Taedo Bigyojosa) 『한중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Hanjung Gwangye-ui

- Mirae: Hanguk-gwa Jungguk Chengnyeon-ui Hanjung Gwangye-e Daehan Insik-gwa Yeokhwal Ganghwa Bangan). pp. 3-70. 서울(Seoul):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중 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Hanguk Chengsonyeon Jeongchaek Yeonguwon Hanjung Gukje Seminar Balpyo Nonmunjib).
- 이동률(Lee, Dong-Ryul). 2011.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Jungguk Minjokjuui Gojo-ui Daeoegwangye Mit Hanjunggwangye Yeonghyang) 『중소연구』(Jungso Yeongu) 35(4): 41-74.
- 이동률(Lee, Dong-Ryul) 외(Oe). 2010.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Junggukin-ui Hanguk Insik-gwa Hanguk-ui Dae Jungguk Gonggong Oegyo Ganghwa Bangan) 서울(Seoul):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Gyongje·Inmunsaehoe Yeonguhoe Daejungguk Jonghab Yeongu Hyeobdong Yeonguchongseo) 10: 03-34.
- 이영학(Lee, Yeong-Hak). 2010. “중국의 소프트 파워 평가 및 함의 - 국제 여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Jungguk-ui Soft Power Pyeongga-mit Hamui) 『아태연구』(Atae Yeongu) 17(2): 199-219.
- 이홍규(Lee, Hong-Gyoo). 2011. “중국의 소프트 파워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Jungguk-ui Soft Power Pyeongga-e Gwanhan Siron-jeok Yeongu) 『중국학 연구』(Junggukhak Yeongu) 57: 271-308.
- 조경란(Cho, Keong Ran). 2010. “현대 중국 민족주의 비판 - 동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Hyundae Jungguk Minjokjuui Bipan - Dongasia Insik-ul Jungsim-euru) 『역사비평』(Yeoksa Bipyeong) 90: 430-468.
- 최지영(Choi, Jiyong). 2011.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Jaehan Jungguk Yuhaksaeng-ui Hankuk-e Daehan Uisik-gwa Minjokjuui Seonghyang Yeongu) 『국제정치논총』(Gukje Jeongchi Nonchong) 51(1): 218-240.
- 케네스 월츠 썸(Kenneth W. Waltz), 정성훈(Jeong, Seong-Hun) 옮김(trans). 2007. 『인간, 국가, 전쟁』(Ingan, Gukga, Jeonjaeng) 서울(seoul): 아카넷(Akanet).

- 한국일보 (Hankook Ilbo). 2012. “전방위 교류로 ‘동반자’ 굳혀… 민감한 이슈엔 불신·갈등의 벽” (Jeonbangwi Gyoryu-ro Dongbanja Gudhyeo… Mingamhan Isyuen Bulsin · Galdeung-ui Byeok) 『한국일보』 (Hankook Ilbo) (8월 20일)
- Dizard, Jr., Wilson. 2001.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T: Praeger.
- Gries, Peter Hays. 2004.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ams, Ellen. 2010. “Digital diplomacy: The Internet, The Battle for Ideas & US Foreign Policy.” *CEU Political Science Journal* 5(4): 538-574.
- Lichtenstein, Jesse. 2010 “Digital Diplomacy”,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0/07/18/magazine/18web2-0-t.html> (검색일: 2014년 3월 5일)
-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he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_____. 2006. “Think Again: Soft Power.” *Foreign Policy*. (Feb. 2006)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6/02/22/think_again_soft_power (검색일: 2014년 3월 10일)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otter, E(ed.). 2002. *Cyber-Diplomacy: Managing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hen, Simen. 2007. *Redefining Nationalism in Modern China: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Emergence of Chinese Public Opin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hen, Simon and Shaun Breslin (eds.) 2010. *Online Chinese Nationalism and China's Bilateral Relations*. London: Lexington Books.
- Xu, Wu. 2007.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Plymouth: Lexington Books.

趙立新(Zhao Lixin). 2011. “20世紀90年代以來中國網絡民族主義評釋.”(20shiji 90niandai yilai Zhongguo Wangluo Minzuzhuyi Pingxi) 『동북아문화연구』(Dongbuka Munhwa Yeongu) 27: 387-398.

紫素芬(Zi Sufen). 2008. 『網絡民族主義的傳播學探討』(Wangluo Minzuzhuyi de Chuanboxue Tantaoh), 蘭州大學校 碩士論文(Lanzhou Daxuexiao Suoshi Lunwen).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Zhongguo Hulianwangluo Fazhan Tongji Baogao) (2014年 1月)
<http://www.cnnic.net.cn/hlwfzyj/hlwzxbg/> (검색일: 2014년 5월 17일).

『中国文化网』 <http://www.chinaculture.org>

時代商報(Shidai Shangbao). 2004. “民族主義“憤青”: 愛國還是誤國?” (Mizuzhuyi “Fenqing”:
Aiguo haishi Wuguo?) 『時代商報』(Shidai Shangbao) (11月10日).

ABSTRACT

China's On-line Nationalism and Korea's Response : Focusing on the Planning of digital public diplomacy strategy

LEE Hong Gyoo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seo University

HA Nam Suk

Lecturer
College of Chinese, HUFS

On-line nationalism appear to be growing stronger in China's internet space which have develop rapidly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lso notable is the fact that Korea became one of the main target of on-line Nationalism in China over recent years. The On-line Nationalism in China against Korea grew stronger whe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generated by various issues of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problems, territory and security issues, unexpected accidents, etc. Anti-Korea sentiment in China's online create a downward circle to Anti-China sentiment in Korea's internet. On-line conflict bring the adverse effects on real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 need diplomatic effort to counteract the on-line nationalism in China. Specially, public diplomacy approach are required to solve the conflict, because this approach means to know partner countries' people, that is to say Chinese citizens before everything else, let them know the truth of issues and exert our influence on them. In particular,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digital public diplomacy plan for Chinese netizens

who advocate on-line nationalism. This article present digital public diplomacy plan toward China's on-line nationalism as the conclusion.

Keywords Korea-China Relations, China, On-line Nationalism, Public Diplomacy, Digital Public Diplomacy